

일주문

의상백일장 개최

지홍 낙산사 주지는 4월 20일 제7회 의상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들에게 15-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상 수상

원경 서울 심곡암 주지는 4월 28일 인간성 회복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효범 통도사 교무국장은 2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1995년 통도사 중강을 역임했다.



내영사 법당 상량식

명각 나주 내영사 주지는 4월 28일 5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BBS 개국 12주년 기념식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은 4월 30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국 12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친진난민한 동자승 얼굴이 부처님 얼굴이네.' 4월 27일 출가식발식을 갖고 30일간의 스님생활에 들어간 조계사 동자승들.

동자승, 30일간의 출가

조계사(주지 지홍)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4월 2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동자승 30일간의 출가 식발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4회째인 동자승 출가식은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린 불제자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고 외부로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법할 수 있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동자승이 된 4~7세의 어린이 12명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삼배를 시작으로 식발의식, 장삼착복, 연비

등을 거쳐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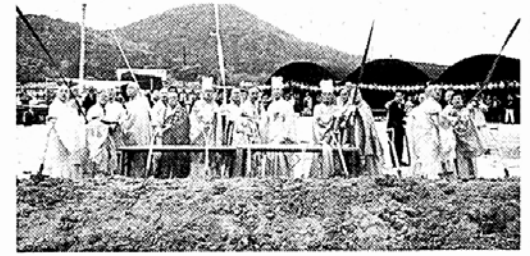
동자승들은 앞으로 30일간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의 예불과 도량청소, 포교 활동 등 스님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축제, 시경 앞 점 등식 등 주요행사에 참석하며, 14일과 25일 두 차례 중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어린이들과 함께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동자승 축구대회'와 사찰 순례 등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영월 망경산사 개산법회 봉행

강원도 영월 망경산사는 4월 28일 500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개산법회를 봉행했다. 전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주사 노전 동성스님, 성주 선석사 주지 선경스님, 김태수 영월군수, 설조스님, 해동불교대학장 대은스님,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왼쪽부터).



일부선교종 경주 연화사 기공식

경주 연화사가 4월 29일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일부선교종 무찰 종정(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 동봉 총무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동봉스님은 인사말에서 "삼국통일의 발원지 경주에 도량이 세워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므로 원만회향을 위해 모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주 구룡사 경로위문법회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4월 27일 2002년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임오년 산신대제와 경로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월정사 회주 인허스님과 주지 현해스님, 전윤찬 강원경찰청장, 박철진 원주문화원장과 지역노인 2000여명이 참석했다. 원행스님이 이날 모인 사부대중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광주사암련 불교합창예술제

광주불교사암련연합회(회장 박성)는 4월 2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를 열었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한마음선원, 광주사암련연합회 연합합창단이 참가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광주·전남 보리살타연 합창팀이 '부처님어아가'를 공연하는 모습. 주용직 광주지사장

"월 1회 철야참회 기도"

나가자불자회 안규준 회장



"회원 모두가 한달에 한번씩 기도처를 참배하며 철야로 참회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 선도 및 독거노인들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창립해 현재 2백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사랑하는 불자 연합회(이하 '나가자 불자회') 안규준 회장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자비행이 불국토 건설에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나가자불자회 회원이 되려면 봉사행과 기도정진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안회장은 4월 27일 회원들과 영월 법흥사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으며, 다음날인 28일에는 흥천 연화사에서 경기·강원 지역의 노인 5천명을 초청해 위안잔치도 벌였다. 또 오는 19일에는 강화전등사에서 개최되는 전국팔씨름대회에서 회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할 계획 등 내실 있는 실행단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m@buddhopia.com

"불심 깊게하는 계기 됐으면"

선시명상곡 발표회 갖는 지범 스님



았으나 이제는 전문포교시대의 한 장르를 개척한 불음포교사로 모두가 좋아한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정호는 물론 불심을 깊게하는 불음포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범 스님은 이번 발표회에서 '먼길' '봄꿈' '청산은 나를 보고' '묵상' 등 고려시대 해심, 의천, 나옹 스님과 중국 아부스

먼길·봄꿈·부모은중경 등 노래

'불음포교사' 지범스님(제주 불광사 주지·사진)이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과 독집음반 제6집 '부처님 마음' 발간을 기념한 선시명상곡 발표회를 11일 오후 3시 제주도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는다. 음해가 불음가수로 데뷔한 지범 10년째인 스님은 "초창기에는 스님이 수행이나 하지 왜 노래나고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

님 선시에 조영근씨가 곡을 붙인 명상곡과 '부모은중경' 노래를 부르고 직접 작사한 '바닷가 불광사'도 소개한다. 지범스님은 "고승들의 높은 정신적 깨우침이 들어있는 선시 노래가 불자들의 가슴에 각별한 울림을 주어 한층 정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64)767-2580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광주에 불교바람 일으킬 것"

창립 10돌 맞은 광주운불련 김재덕 회장



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연보호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는 가톨릭, 개신교 운전기사 사회와 유대를 강화해 종교간 화합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찰 갖기 등 개별 실행활동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김 회장은 "법회를 충실히 열어 회원들

타종교 기사회와 화합 활동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광주지역에 불교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포교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광주지역회(이하 광주운불련) 김재덕(54·사진) 회장은 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포교활동 강화에 중점을 둔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회장은 "회원과 회원 차량

이 신심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운불련은 92년 5월 1일 창립 이후 무각사와 동림동 사무실에서 월 1회씩 법회를 열고 있으며, 교통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각종 봉사활동과 성지순례, 전국 운불련 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광주지역 불교화성화를 꾀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k@buddhopia.com



동산반야회 범종조성 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2일 동산불교회관 법당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범종조성 법회를 봉행했다. 무진장스님, 가수 김흥국 씨 등 1백여 명이 동참해 월드컵 축구부 사인제도 열었다. 한편 동산반야회는 4월 30일 일본 홋카이도 양원사와 영불, 천불가 등 불교교류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흥국 씨, 무진장 스님, 김재일 회장.



인천사암련 월드컵 성공 기원 법회

인천사암련연합회(회장 지철)는 4월 26일 인천 보각사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및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천등사 주지 계성스님 등 인천 경승지단 스님들과 인천지방경찰청 신하 경찰불자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약사사 주지 화승스님의 낭독으로 인천지역 발전을 발원하는 발원문도 봉독했다. 법회후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한 모습. 한수갑 인천지사장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546th Buddhist Festival (부처님 오신날) featuring various activities like 'Chanting and Meditation', 'Children's Hands', 'Cultural Exchange', and 'Peace'. Includes dates, lo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ijesa (조계사).